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읽는 국어 교과서(2)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여인이 젊었을 때였다. 남편이 거들 사업에 실패하자 내외는 갑자기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장사를 했다. 서울에서 사과를 사서 싣고 춘천에 갖다 넘기면 다소의 이윤이 생겼다.

그런데 한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어도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제 날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이틀째에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닳새째 되는 날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에만 달으면 만나겠지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만하게 알았나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관을 뒤졌지요, 여관이란 여관은 모조리 뒤졌지만 그이는 없었어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눈으로 새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이의 친한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신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흑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려 봤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행렬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과 껍질을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재값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 안 될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하면서, 어젯밤 늦게 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때만 해도 내시간이나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그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엘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설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뻐 그랬지▶ 제일제당 '미풍'
 '아지노모도'가 그랬듯이 "미원"이라는 브랜드가 화학 조미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 될 만큼 '미원'은 모든 사람들의 맛이었습니다. 그때 재벌 대기업에서 "미풍"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대항했지만 사람들의 입맛에 깊게 자리잡은 미원을 그것으로 바꾸지 못한 채 끝난 일등주의 삼성의 자존심을 구긴 조미료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양보다는 맛이 우선했던 척박한 시대! 달작지근한 맛을 주던 미원의 시대도 이젠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비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감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2월 15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는

-개를 워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

교만한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하노라.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노라.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뒤통의 고통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다

◀남편 기 살리는 말▶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남편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아내 기 살리는 말▶
 "역시 나는 처복이 많아"
 ◀아내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하루 종일 뭐 했어?"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문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멀리 멀리 갔더니"	윤영전 집사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6 (이사야 40)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55장	다같이
기도 Prayer		최재학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계시록 2:12-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진리가 없는 사랑에 빠진 버가모교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09장	다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김소연 권사 가정 2절: 다같이)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주방봉사
1	정희자	김진근	이종인 현순진	최원영 최장한	
8	지찬영	김정애		최재학 최현철	1구역
15	최재학	김현자	백제성장유진	현석호 경덕현	2구역
22	현석호	마경춘	김수찬 윤영전	고성일 권용일	3구역
29	김교섭	박병민		권정호 김경구	4구역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한국방문> *이종후 성도(아동부교사). '뽕복새가 논에서 울면 말타고 장가 가겠다고 천정 오빠의 그 행복한 날..'

*윤경례 집사

<등록하심을 환영합니다> 이관엽. 조영자 집사. 수원

☎ 578-3681 ☒ 139 St. Johns Rd. St. John

<등록> (죄송합니다. 등록소식 알려 드린 줄 알았는데 착각했습니다)

*김소연 권사(母). 백제성, 장유진 집사. 상윤. ☎268-8520

☒ 59 Charles Prevost Dr. Manurewa

*김삼영, 이영미 집사. 형우 ☎ 307-3377 ☒ 3L/160 Symonds St. City

2. "은 십자가 성가대" 찬양(매달 셋째주일)

*오늘은 제1여선교회에서 "은 십자가 성가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전 그 맑았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워진 신앙과 삶의 연조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Next: 3월셋째주일 제1남선교회)

3. 오늘은 식사친교주일: 제 2,4여선교회에서 넉넉히 준비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준비한 손에 힘이 빠집니다. 수고하신 선교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4. "부활절 봉헌 영어성경 쓰기"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부활의 예수님께 우리는 정성스런 말씀을 직접 담아 드리는 부활아침의 봉헌에 여러 교우들께서 동참하셨습니다.

*성경쓰기 시작: 사순절 첫날(2월 25일). 다음주일에 배부 될 양식종이 사용.

*동참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신청서에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내석)

5. 영어 성경공부: <Teacher> Barbara kipfer(Fowey Lodge Bible School)

<일시> 24일부터 매 화요일(7회) 1:30pm <장소> 장년부실 <대상> 갈보리교회 여성교우

6. 교회요람: 1 가정 1권.

*혹시 누락된 분이 계실까 보고 또 보고했어도 조심스러움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작한 시인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중에서 -괴테-

"내 손가락이 어쩌다 그녀의 손가락에 닿거나 우리의 발이 테이블 아래에서 맞닿거나 할 때면, 아아, 뜨거운 피가 내 혈관 속에서 얼마나 마구 뛰는지 모른다네.

그럴 때면 나는 마치 불에 데기라도 한 것처럼 얼른 손과 발을 움츠리곤 하네. 하지만 이내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살며시 몸을 펴보지만 일시에 감각이 마비되는 듯하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네.

아아! 그런데도 순진하고 구김살 없는 영혼을 가진 그녀는 그런 사소한 친근함의 표시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쑥스러웠던지 e메일로.

떨리서 보이기만해도 가슴 뛰던 여드름 읽은 시절, 유행가 가사가 나의 마음을 읽고 쓰여진 것인양 명곡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다.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내 삶의 여정을 아들이 오롯이 밝아오고 있어 풋풋했던 짝사랑이 새삼 떠 올랐습니다. 그런데 웬지 미덥지 못해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e메일로 보낸 것은 품박으로 벗어나는 아들에 대한 아쉬움인가 봅니다